예로부터 전해오는

우리 민족악기

주체109(2020). 5.

화첩을 내면서

슬기롭고 문화적소양이 높으며 정서가 풍부했던 우리 선조들은 먼 옛날부터 자연을 개조하기 위한 창조적인 로동생활과정에 여러가지 우수한 민족악기를 만들어 문화정서생활에 리용해왔다.

청동기시대에 벌써 뼈피리를 비롯한 여러가지 악기를 만들어 리용하였으며 고대시기에는 《공후인》과 같은 서정가요가 공후라는 지탄악기로 연주되였다. 이러한 사실은 고대시기부터 우리 인민들이 악기를 일상생활에 리용해왔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후 세나라시기에 가야금, 피리, 저대 등 수십여종의 훌륭한 악기들이 창안리용되였고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이르러 민족악기는 지나간 력사적시기에 창조된것을 전승하면서 큰 규모의 궁중악단과 농악대를 비롯한 민간기악음악 등의 연주수단으로서 발전을 이룩하였다.

이처럼 선조들의 뛰여난 음악적재능과 슬기가 깃들어있는 우리 민족악기는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비로소 획기적발전을 가져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문화건설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해방직후 전국에 흩어져있던 음악가들을 한데 모아 전문연주단체를 무어주시는 한편 음악가들을 체계적으로 키우도록 음악학교도 창설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나라 민족악기들이 가지고있던 부족점들을 통찰하시고 민족악기개량원칙을 천명하시였을뿐아니라 전국의 도처에 악기공장, 악기연구집단들을 무어주시고 개량사업조건을 일일이 마련해주시는 한편 개량된 악기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고 그 완성을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그이의 빛나는 예지와 정력적인 지도밑에 옥류금과 같이 훌륭한 민족악기가 새로 태여나고 저대, 피리, 가야금을 비롯한 종전에 제한된 소리밖에 낼수 없었던 5음계의 민족악기들이 개량되여 그 어떤 복잡한 현대음악도 훌륭히 연주할수 있게 되였다.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에 맞게 훌륭히 개량된 민족악기들은 주체의 음악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있으며 우리 민족음악은 세인의 경탄을 자아내고있다.

(편집부)

차 례

독특하고 다양한 우리 민족악기 6

관악기

소피리 7
퉁소 8
약 8
적 9
당적 11
라발(나팔) 11
생황 12
훈 14
라각 15
피리 16
저대 17
단소 18
장새납 18
새납 19

현악기

아쟁 21
대쟁 22
거문고 22
슬 23
공후 24
가야금 26
해금 28
양금 31
어은금 32
옥류금 33

타악기

운라 35
방향 36
편종 37
편경 38
특경 39
삭고 40
응고 41
령고 42
뢰고 42
로고 43
좌고 44
절고 45
진고 46
교방고 47
도 48
로도 48
뢰도 49
령도 49
흔들북 50
박 51
어 52
룡고 53
갈고 54
장고 55
북 56
바라 57
꽹과리 58
징 59

자라나는 민족악기연주가후비들 60
전통적이며 현대적인 악기로 발전해가는 우리 민족악기 66
이목을 끄는 악기전시회 70
우리의 멋과 흥취를 돋구어주는 민족악기 72

상 식

삼현륙각 7
《공후인》 25
가야금과 우륵 27
우리 나라 민족악기의 특성 31
박연 34
농악 59
우리 식 관현악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 74

옛 그림 《피리소리에 취하여》(19세기)

관악기

조선민족관악기는 오랜 력사를 가지고 발전하여왔으며 그 음색이 독특하고 종류도 많다.

함경북도 선봉군(오늘의 라선시)에서 발굴된 뼈피리가 B.C. 2 000년경의것이라는 점을 놓고볼 때 관악기의 력사가 매우 오래다는것을 알수 있다.

관악기의 재질은 주로 참대로 된것이 많았고 짐승의 뼈와 옥돌을 가공하여 만든것도 있으며 토기나 청동을 쓴것도 있다. 그리고 유황악기와 무황악기 등 발음원리도 여러가지이다. 그런가 하면 여러개의 관대를 묶어서 만든 특수한 악기도 있다.

관악기는 저대나 퉁소와 같이 갈청소리가 진하고 짙은 통음을 할수 있으며 새납과 같이 특색있고 풍부한 음량을 가진것 등 특징이 있다.

민족악기를 개량발전시키는 과정에 목관악기들은 음색이 더욱 윤택해지고 단소속악기와 저대속악기, 피리속악기들이 성부별로 정리되였으며 민족적색채를 살리면서도 현대음악을 연주할수 있게 발전되였다.

결과 단소와 저대, 대피리, 장새납 등 목관악기들이 독주악기로 널리 사용되고있으며 전면배합관현악에서는 물론 교향악의 양악3관편성에 참가한 민족관악기들은 관현악의 울림을 세상에 없는 독특한것으로 되게 하고있다.

소피리

소피리는 피리류가운데서 가장 작은 악기로서 두겹리드를 쓰는 세로 부는 민족관악기이다.

민족적특색이 있으면서도 5음계체계로 조률된 소피리는 불기도 힘들지 않으며 쉽게 만들어 불수 있을뿐아니라 음색이 또한 사람의 목소리와 가까운것으로 하여 인민적인 악기로 널리 리용되였다.

삼현륙각

삼현륙각이란 중세기에 여섯개의 악기를 가지고 연주한 우리 나라의 민족기악 중주양식을 말한다.

피리2(향피리, 세피리), 저대1, 해금1, 장고1, 북1로 편성되였다. 여섯개의 악기로 구성되였다고 하여 흔히 《륙재비》라고도 한다. 삼현륙각에서 주선률은 두대의 피리가 담당하고 저대는 피리의 아름다운 선률을 구성진 소리로 은근히 깔아주며 해금은 주선률을 감싸주었다. 삼현륙각은 주로 야외에서 연주하는 중주형식이였다. 삼현륙각의 시원에 대하여 명확히 밝힌 문헌자료는 없으나 민간에서 삼현륙각으로 연주되는 《산대놀이》나 《탈놀이》음악의 전통적계승관계로 미루어보아 이미 고려 전반기부터 사용되여온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통소

통소는 세로 부는 무황죽관악기이다.

통소는 오랜 력사적과정을 거쳐오면서 우리 인민의 사랑을 받아왔다. 자료에 의하면 4세기 중엽의 고구려무덤벽화에 《소》를 부는 그림이 있는것으로 보아 그 이전시기에 만들어져 사용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통소는 단소와 같이 내려부는 무황악기로서 처량하면서도 남성적이고 웅글은 소리를 낸다.

적

적은 단소모양과 류사하며 내려부는 죽관악기이다.

약

약은 고려시기부터 사용하였는데 합주에서 보충적역할을 하는 특수악기였다.

옛 그림 《피리부는 로인》(20세기)

당적

우리 나라에서 당적이 사용되기 시작한것은 1380년대부터이며 이때로부터 이 악기를 저대류들과 구별하기 위하여 당적이라고 하였다.

당적은 궁중악에서만 사용된 횡적의 일종이다.

라발(나팔)

우리 나라에서 유일한 금관취구악기이다.

몇개의 배음밖에 내지 못하는 라발은 군대신호용으로 사용하였다.

생황

생황은 여러개의 관을 묶어만든 죽관악기이다.

문헌자료에 세나라시기인 7세기초에 고구려에서 생황을 사용하였는데 주로 궁중음악이나 직업음악가들속에서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후 신라, 백제에서도 널리 보급되였다.

생황은 여러개의 참대관을 둥글게 조립하고 그속에 금속제리드를 설치하여 불게 되여있는데 선률보다 주로 화음을 연주하였다.

옛 그림 《생황소리》(19세기)

훈

훈은 흙으로 빚어서 구워만든 토제무황악기의 하나이다.

력사자료에 의하면 1114년부터 궁중악에서만 쓰인것으로 알려져있다.

옛날부터 《훈지상화》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훈과 지가 음색적으로 잘 융합된다는 뜻이다.

라각

라각은 원시사회부터 사용되였으며 주로 로동생활에서 단순한 신호악기로 쓰이였다. 라각은 단순한 몇개의 배음밖에 낼수 없으며 다만 몇개 음을 지속하여 길게 불따름이다.

저피리

대피리

피리

피리는 풍부한 음량과 함께 민요적굴림기교들 특히 서도민요들의 굴림기교에 속하는 롱음, 미분음과 끌소리들을 능숙히 구사할수 있는 악기이다.

재래식피리는 그 소리가 맑지 못하고 생소리 지어 쐭소리에 가까운 탁성이였으며 음역이 좁고 5음계로 조률되였다. 또한 자연재료인 참대를 그대로 울림통으로 만들었기때문에 음정과 음색의 통일을 보장할수 없었으며 여러가지 현대적음악실천에서 많은 부족점을 가지게 되였다.

민족악기들을 개량발전시키는 과정에 피리도 새롭게 개량되는 한편 새로운 피리속악기들인 소피리, 대피리, 저피리들이 생겨나게 되였다.

저대

중음저대

고음저대

저대

이전시대의 저대는 음색이 독특하고 다양한 연주기교를 활용할수 있었으나 5음계로 조음되여 여러가지 조성으로 연주할수 없고 갈청소리가 진하게 나는것 그리고 음역과 음량이 부족한것 등 우리 시대의 미감에 뒤떨어진 측면들도 적지 않았다.

그후 저대는 현대적미감에 맞게 개량발전되는 과정에 저대, 고음저대, 중음저대의 세가지로 파생되였으며 음역과 음량이 풍부해지고 12반음계체계로 조률되여 어떤 음악도 다 연주할수 있게 되였다.

단소

단소는 세로 내려부는 민족목관악기의 하나이다.

본래 단소는 소리가 청아한 우점을 가지고있는 반면에 음량이 약하고 음역이 넓지 못한것 등 일련의 부족점들을 가지고있었다.

단소를 개량발전시키는 과정에 1960년대 후반기에 들어와 고음단소가 새롭게 태여났다.

단소의 청담한 음색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풍부한 음량을 가진 고음단소는 배합관현악의 가장 높은 음역을 담당하여 민족적인 색채를 살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있다.

새납

새납은 밝고 청아한 소리의 색갈을 가지고있을뿐아니라 풍부한 음량과 독특한 주법적특성으로 하여 우리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진 악기이다. 특히 농민들의 생활과 깊이 련관된 인민적인 악기로 사용되여왔다.

지난 시기 새납은 그 발전의 력사적제한성으로 하여 적지 않은 부족점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후 현대적미감에 맞게 제작과 가공법이 섬세하게 발전됨으로써 강하고 경축적인 소리뿐아니라 밝고 화려한 음색 그리고 보다 약한 소리를 쉽게 얻을수 있는 풍부한 음량적폭을 가지게 되였다.

장새납

장새납은 새납을 우리 시대 인민들의 지향과 발전하는 음악실천의 현대적요구에 맞게 개량발전시킨 악기이다.

장새납은 그 크기가 새납보다 더 길다고 하여 장새납이라고 부르게 되였다. 장새납은 새납이 가지고있는 풍부한 음량과 밝고 화려한 음색적특성을 구현하였기때문에 민족악기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면서도 다양한 연주기교들을 충분히 발휘할수 있는 특색있는 민족목관악기로 발전되였다.

옛 그림 《가야금을 타며》(19세기)

현악기

조선민족현악기는 발전력사가 오래며 다종다양하다.

현악기에는 가야금이나 슬, 대쟁과 같은 지탄악기(손가락이나 깍지, 술대 등으로 줄을 뜯거나 튕겨서 소리를 내는 줄악기)와 해금, 아쟁과 같은 찰현악기(활로 줄을 켜서 소리를 내는 악기) 그리고 타현악기(채나 방망이로 줄을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악기)들이 있다.

조선민족현악기들이 다른 나라의 현악기들과 구별되는 특징은 울림통을 대체로 오동나무로 만들고 악기의 줄은 거의가 천연누에고치에서 뽑은 명주실을 꼬아 송진처리한 줄을 썼으며 롱현주법을 할수 있게 만들어진것이다.

민족악기를 전면적으로 개량발전시키는 과정에 현악기들은 악기들의 독특한 음색을 살리면서도 형태와 재질을 과학화하여 음색이 보다 부드러워지고 음량과 음역도 현대악기의 수준으로 확대되였다.

오늘 해금, 가야금, 옥류금과 같은 현악기들은 독주악기로 널리 사용되고있을뿐아니라 민족관현악, 배합관현악 등 모든 기악안삼블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있다.

소아쟁

아쟁

우리 나라에서 아쟁이 사용되기 시작한것은 12세기부터이다.

문헌자료에 의하면 옛날에는 아쟁을 물에 추긴 대쪽(활털이 없는 참대봉)만으로 줄을 그어 소리를 내였다고 한다.

원래 7현이였던 아쟁은 8현으로 개량되였으며 그후 소아쟁, 중아쟁, 대아쟁으로 성부들이 나누어지게 되였다. 또한 악기의 줄도 철선으로 하고 활도 털로 만든 활을 사용하여 맑고 아름다운 소리가 날수 있게 되였다.

중아쟁

대쟁

대쟁은 지탄악기로서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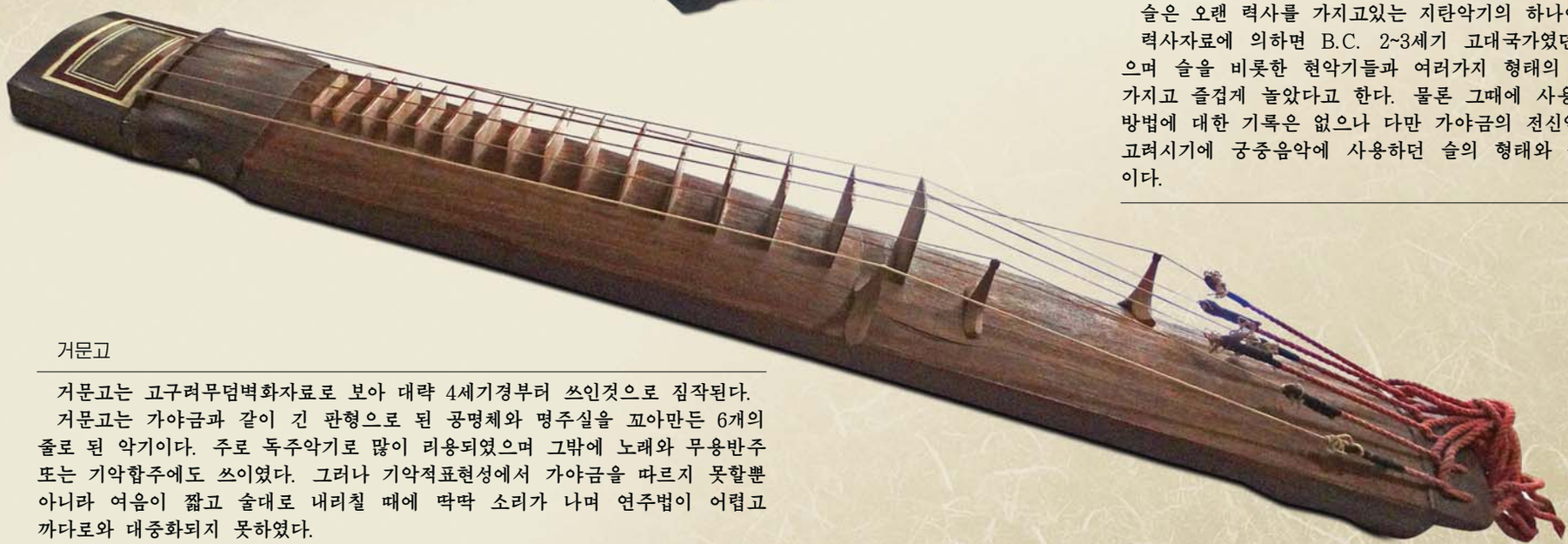
고구려시기에 벌써 탄쟁, 극쟁, 후쟁과 같은 악기들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것으로 보아 대쟁과 같은 지탄악기를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해왔다는것을 알수 있다.

대쟁은 고려시기에 주로 궁중에서만 사용하였고 민간에서는 널리 보급되지 못하였다.

슬

슬은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는 지탄악기의 하나이다.

력사자료에 의하면 B.C. 2~3세기 고대국가였던 진국에서 노래와 춤을 즐겼으며 슬을 비롯한 현악기들과 여러가지 형태의 방울, 북, 피리 등의 악기를 가지고 즐겁게 놀았다고 한다. 물론 그때에 사용하던 슬의 구조와 형태, 연주방법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다만 가야금의 전신악기로 추측할따름이다. 그것은 고려시기에 궁중음악에 사용하던 슬의 형태와 구조가 가야금과 비슷하기때문이다.



거문고

거문고는 고구려무덤벽화자료로 보아 대략 4세기경부터 쓰인것으로 짐작된다.

거문고는 가야금과 같이 긴 판형으로 된 공명체와 명주실을 꼬아만든 6개의 줄로 된 악기이다. 주로 독주악기로 많이 리용되였으며 그밖에 노래와 무용반주 또는 기악합주에도 쓰이였다. 그러나 기악적표현성에서 가야금을 따르지 못할뿐아니라 여음이 짧고 술대로 내리칠 때에 딱딱 소리가 나며 연주법이 어렵고 까다로와 대중화되지 못하였다.

소공후

공후

공후는 오랜 력사를 가진 지탄악기의 하나이다.

공후류 악기들은 세나라시기에 널리 보급되였으며 백제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소공후는 백제금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지게 되였다고 한다.

공후는 그 크기와 주법에 따라 소공후와 수공후, 와공후로 나눈다.

소공후는 오른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왼손으로 뜯거나 또는 오른쪽 허리띠에 꽂아 통을 세워가지고 서서 연주하며 걸어가면서 연주하기도 한다.

수공후는 와공후와는 달리 세워놓고 연주하는 공후이다.

수공후는 음향적 및 주법적제한성으로 하여 오늘에 와서는 연주실천에 쓰이지 않고 영구보존되여있다.

《공후인》

고조선의 려옥이 창작한 고대가요이다. 《공후의 노래》라고도 한다.

《해동역사》, 《오산설림》 등 옛 문헌들에 설화와 함께 실려있다.

설화에 의하면 어느날 고조선의 려옥이란 녀인이 배사공인 남편 곽리자고로부터 물에 빠져죽은 로인부부의 참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공후를 타면서 그 애달픈 사연을 노래에 담아 불렀다고 한다.

님아 강을 건느지 마소
그예 님은 건느시네
강물에 빠져죽으시니
어저 님을 어이하리

《공후인》은 현재 유일하게 전해지고있는 고대가요로서 계급국가형성이후시기의 문학예술의 특성과 그 사상예술적면모를 연구하는데서 귀중한 자료로 된다.

수공후

가야금

가야금은 여러줄로 된 뜯음줄악기이다.

본래 가야금은 오동나무속을 파내고 그것을 울림통으로 하여 그우에 12개의 줄을 메워 소리를 내였다.

그후에 웃판과 밑판을 서로 다른 나무로 무어서 울림통을 조립하고 줄을 거는 꼬리부분을 붙이고 21줄로 늘여 지금과 같은 가야금형태를 갖추게 되였다.

오늘 개량된 가야금은 부드럽고 우아하며 처량한 음색의 특징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넓은 음역과 풍부한 음량을 가지게 되였으며 민요적굴림기교들은 물론 그 어떤 음악도 다 연주할수 있게 되였다.

가야금과 우륵

우륵은 6세기초 중엽에 활동한 음악가이다.

우륵은 우리 나라 민족악기의 하나인 가야금을 처음으로 만들었을뿐아니라 그것을 보급하는 사업에 일생을 바쳤다.

그는 가야금연주의 명수였을뿐아니라 수많은 가야금곡들을 창작하였다. 《삼국사기》에 그가 창작한 《하가락도》, 《보기》, 《달기》, 《사물》, 《물혜》 등 여러곡이 기록되여있다.

그의 제자로서 재능있는 음악가로 성장한 법지, 계고, 만덕 등은 수많은 곡을 만들었을뿐아니라 가야금을 널리 보급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는 작곡가, 연주가, 교육자로서 널리 알려져있으며 특히 가야금과 같은 훌륭한 민족악기를 만들어냄으로써 우리 나라 음악문화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소해금

중해금

해금

해금은 고조선시기부터 사용되여온 우리 나라의 고유한 민족악기이다.

해금은 오래전에 우리 선조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훌륭한 악기이지만 쐑소리를 내거나 주법기능이 원활하지 못한것 등 일련의 결함들을 가지고있었다.

해금은 현대적으로 개량발전되여 맑고 아름다운 소리를 낼수 있게 되였으며 악기형태도 우리 인민의 미학적요구에 맞게 개조되였다.

해금을 발전시키는 과정에 소해금, 중해금, 대해금, 저해금으로 늘어나 해금악기속을 형성하게 되였다.

대해금

저해금

양금

우리 나라 민족악기의 하나인 두드림줄악기 양금은 18세기 말경부터 도입되여 음악가들뿐만아니라 인민들속에서 쓰이게 되였다.

종래의 양금은 네모난 나무통우에 줄받치개(괘)를 세워놓고 거기에 쇠줄을 메워 참대로 만든 채를 한손으로 두드려 연주하였다.

그후 개량된 양금은 두손으로 연주하게 되였을뿐아니라 음량이 더욱 커지고 음색도 부드럽게 되였다.

우리 나라 민족악기의 특성

우리 나라 민족악기의 고유한 특성은 첫째로, 소리울림이 전반적으로 맑고 처량하며 부드럽고 우아한 맛을 가지고 있는것이다.

특성은 둘째로, 그 표현력이 매우 섬세하고 풍부한것이다.

특성은 셋째로, 우리 나라 민족악기들이 12률반음체계로 이루어진 5음계로 되여있는것으로 하여 양악기들이 표현하지 못하는 독특한 소리를 내는것이다.

어은금

어은금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나날에 몸소 악기의 제작을 발기하시고 완성하도록 이끌어주시였으며 그 이름을 지어주신 악기이다.

어은금은 우리 나라 민족악기의 고유한 음색적특성을 잘 살리고 시대적미감에 맞게 만들어진 민족현악기이다.

맑은 음색과 풍부한 표현성으로 하여 독주, 중주, 합주, 병창, 배합관현악 등 다양한 연주형식에 리용되고있다.

어은금을 발전시켜 소어은금, 중어은금, 대어은금, 저어은금으로 어은금속을 구성하였다.

옥류금

옥류금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지도에 의하여 1970년대초에 새로 창안제작된 악기이다.

풍만한 울림과 단음, 복음, 트레몰, 알페지오, 롱현 등 다양한 주법들이 결합된 명수적인 표현가능성으로 하여 옥류금은 그 어떤 음악도 다 훌륭히 연주할수 있는 완성된 악기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구슬같이 맑은 소리를 내는 새로운 악기의 음색적 및 주법적특성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친히 그 이름을 □ 이라고 명명해주시였다.

옥류금은 주체적배합관현악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안삼블에 참가할뿐아니라 독주악기로 널리 활용되고있다.

타악기

조선민족타악기는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으며 그 종수가 50여종이나 되고 형태와 구조원리가 다양하다.

B.C.유물인 청동방울과 고구려시기의 무덤벽화들에 여러종의 타악기들이 그려져있는것으로 보아 타악기의 력사가 대단히 오래다는것을 알수 있다.

우리 나라의 옛 타악기들에는 대단히 크며 웅장하고 화려하게 만든 건고와 진고 같은것도 있고 장고와 같이 북편과 채편이 있는 악기도 있으며 률을 맞추어 여러개의 청동을 주조하여 매달아놓고 치는 편종, 울림이 좋은 특수한 돌을 가공하여 틀에 걸어놓고 치는 편경, 금속편을 가공하여 틀에 배치해놓고 치는 방향과 같은 타악기들도 있다.

타악기는 북막악기, 금속타악기와 같은것이 기본을 이루고있지만 흙을 구워서 만든 부와 나무쪼각을 묶어서 만든 박, 참대통으로 만든 독 등과 같은것들도 있다.

그리고 엎드린 범을 형상한 어와 작은 북들을 여러개씩 꽂아만든 도, 여러개의 북을 묶어매단 령고와 뢰고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한 타악기들이 있다.

조선민족장단의 억양이 독특하고 다양하며 농악이라는 독자적인 타악기중주양식까지 창조될수 있은것은 타악기의 구성이 다양하고 연주가능성이 풍부한것과 관련된다.

1960년대부터 타악기는 관악기, 현악기와 함께 현대적으로 개량되였다.

장고와 북, 꽹과리, 징 등 여러종의 타악기들은 오늘도 음악의 민족적색채를 살리고 민속무용반주나 민족음악의 흥취를 돋구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

박 연

박연(1378—1458)은 조선봉건왕조시기에 활동한 음악리론가, 연주가로서 고구려의 왕산악, 가야의 우륵과 더불어 중세기 우리 나라의 3대음악거장으로 일러오고있다. 어려서부터 향교에서 글공부를 하면서 이웃에 사는 저대명수에게서 저대를 배워 비상한 음악적재능을 발휘하였다.

그는 당시 혼란된 궁중음악을 바로잡고 불비한 외래아악대신 향악에 기초한 조선식아악, 신정아악을 창제하는데 힘을 기울이였다. 이 시기 박연 등이 창제한 신정아악은 제례악뿐아니라 조회악, 연례악에도 쓸수 있게 되였다. 그는 장편악장가사인 《룡비어천가》를 관현악에 맞추어 연주하기 위한 악곡들과 문무, 무무에 사용할수 있는 악곡들이 창작되자 그것을 정간식문자악보로 기보한 《세종악보》를 출판인쇄하여 조회악, 연례악, 제례악의 대관현악합주에 총보로 리용할수 있게 하였다.

당시 예문관 대제학으로 있던 박연은 아들이 계유년사건에 걸려들자 파직되여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였는데 친구들과 헤여지면서 저대를 불자 누구나 그의 재능에 감탄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박연은 향악의 수집정리와 민족적선률의 체계화, 12률관의 창안과 악기제작 및 개량, 신정아악과 정간보의 창제, 대관현악총보로서의 《세종악보》편찬 등 우리 나라의 중세음악을 리론실천적으로 체계화하는데 크게 기여한 음악리론가이며 기악명수였다.

운라

운라가 우리 나라에서 사용되기 시작한것은 대략 14세기부터라고 본다.

운라는 대중악기로 널리 사용되지 않았고 합주에서 색채적으로 써왔다.

운라의 음색은 금속성이면서도 포근하고 긴 여음을 가지고있다. 낮은 소리일수록 폭이 있고 처량하며 고음으로 올라갈수록 영글고 아름답다.

운라의 매력있는 음색은 멀리에서 들려오는 종소리와 비슷하여 깊은 사색과 우아한 정서를 자아낸다.

방향

방향이 우리 나라에서 사용되기 시작한것은 1114년경이다.

간편하게 걸이를 만들어 메고 다니면서 연주하기도 하고 고취악에서도 사용한 방향은 점차 궁중음악에서 선률을 담당하는 악기로 발전하였다. 방향은 금속편으로 된 철방향도 있고 돌쪼각으로 된 석방향도 있다.

방향은 그 소리가 류창하여 종이나 편을 대신하여 쓰이기도 하였다.

편종

편종은 자그마한 여러개의 종들을 악기틀에다 엮어놓고 연주하는 선률악기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1116년경부터 궁중아악에서 사용되였다.

지난 시기에는 36개의 종을 엮어만든 편종과 24개, 19개, 14개로 된 편종 등이 있었으나 오늘까지 전해진것은 16개의 종으로 엮어서 만든 편종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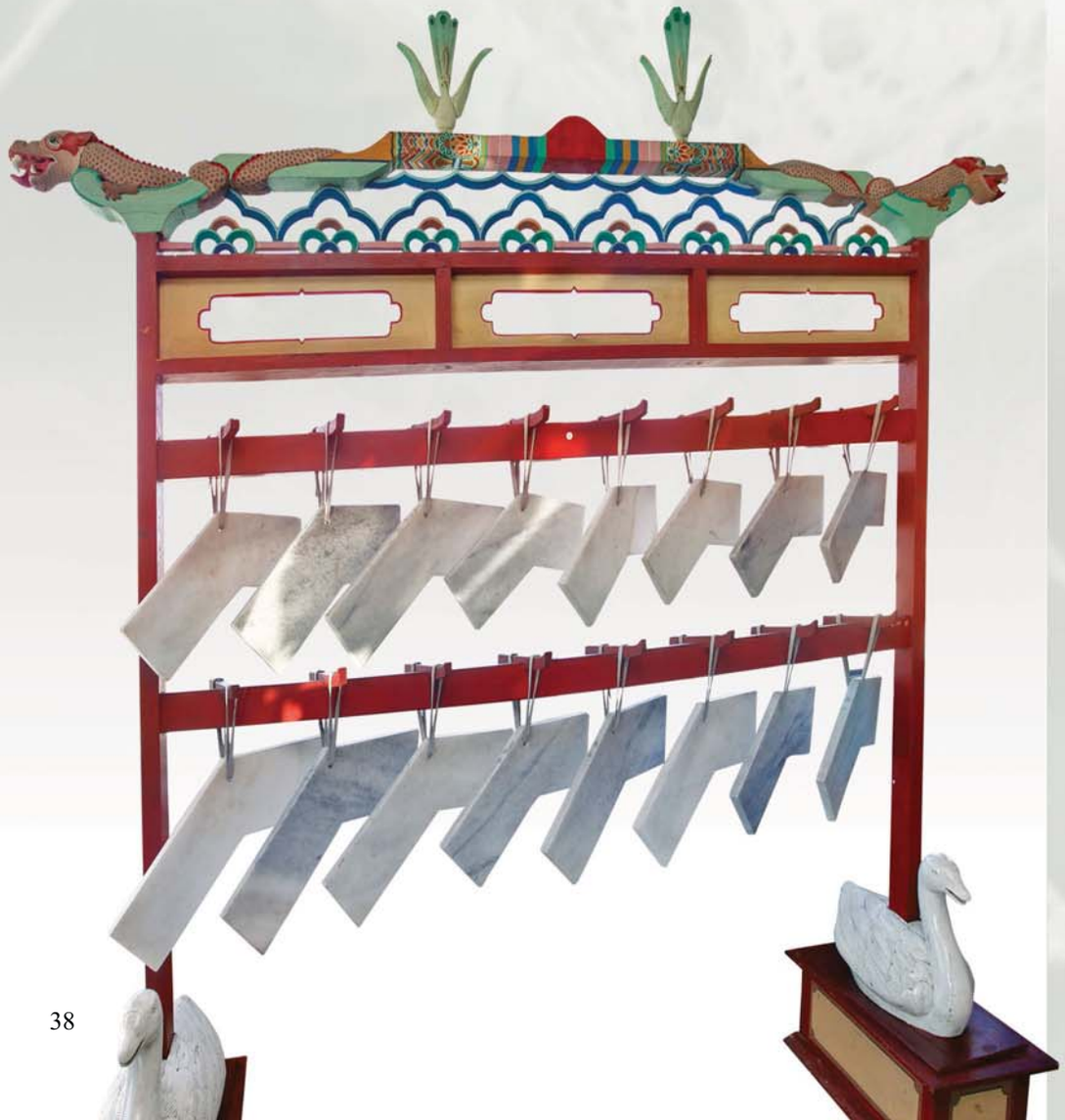
종의 음색은 맑고 아름다우며 개방적인 여음이 긴것이 특징이다. 긴 여음으로 하여 빠른 선률연주는 곤난하다.

편경

편경은 악기틀에 음원체인 자그마한 경들을 여러개 묶어서 만든 유률 타주악기이다.

우리 나라에서 편경이 사용되기 시작한것은 편종과 같이 1116년경부터이며 궁중아악에서만 리용하였다.

이 악기에는 32개로 된 편경과 24개, 16개로 된것이 있다.



특경

특경은 편경의 경보다 더 큰(2배정도) 경 한개를 악기틀에 매달아놓은 타주악기이다.

특경의 음정은 《C》이며 연주는 뿔로 만든 망치로 치는 방법으로 한다.

삭고

삭고와 응고

삭고와 응고는 모두 4각형의 악기틀의 웃가름대에 북통을 걸어놓고 옆으로 치는 타악기이다.

다만 응고는 삭고보다 북통이 좀 작은 차이를 가질 뿐이다. 삭고가 음악연주의 시작을 알리기 위하여 쳤다면 응고는 음악이 끝날 때 쳤다고 한다.

이 악기들이 우리 나라에서 사용되기 시작한것은 14세기경이라고 본다.

응고

령고

뢰고

로고

령고, 뢰고, 로고

령고와 뢰고, 로고는 모두 여러개의 북편을 묶어놓은것이 특징이다.

령고는 고리를 중심으로 8개의 북편을 붙여 만들었고 뢰고는 한쪽북편만 있는 6개의 북통을 묶어서 매달아놓았다. 로고는 그보다 큰 2개의 긴 북을 가로 덧놓아 매달아놓았다.

이 악기들은 모두 북을 매다는 틀에 장식을 하였다.

좌고

좌고는 걸어놓고 치는 북의 하나이다.

좌고는 세나라시기 두사람이 메고 가면서 치는 북인 담고가 발전된것으로 본다.

자료에 의하면 좌고는 15세기경에 민간에서도 널리 사용하였는데 그후 19세기말에 이르러 점차 사용되지 않았으며 보통북인 룡고와 교체되였다.

절고

절고는 바둑판모양으로 된 함통우에 올려놓고 치는 북이다. 절고가 우리 나라에서 사용되기 시작한것은 15세기부터이다.

절고는 합주의 첫시작과 마지막을 알리는데만 쓴것이 아니라 주악의 사이에도 진고와 같이 사용되였다. 절고는 북통옆에서 북채로 북편 가죽만을 쳐서 연주하였다.

진고

진고는 네개의 기둥으로 된 받침대우에 올려놓고 치는 북이다.

진고가 우리 나라에서 사용되기 시작한것은 15세기부터이다. 진고는 주악의 첫시작과 마감을 알리는데도 사용되였고 주악의 사이사이에도 쓰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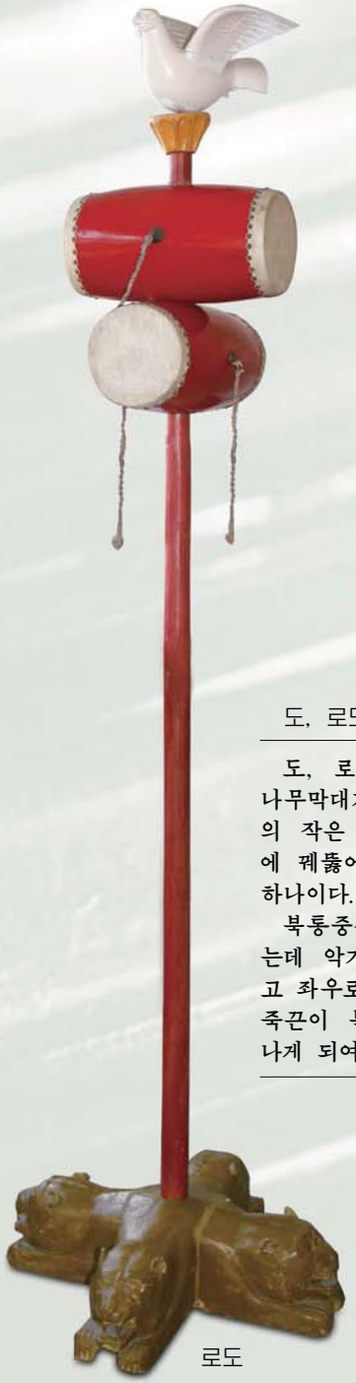
주로 매 소절의 강박에 치군 한다. 북채는 나무로 하였다.

교방고

교방고가 우리 나라에서 사용되기 시작한것은 14세기경이다.

네개의 기둥으로 된 북틀안에 북편이 우로 향하게 걸어놓고 북방망이로 내리쳐서 소리를 낸다. 교방고는 연주에서 강박에만 한번씩 치는 악기이다. 교방고는 두사람이 메고 행진하면서 옆에서 연주가가 치군 하였는데 이때는 행악고라 하였고 또 교방고를 중심에 놓고 여러명이 북을 치면서 춤을 추었는데 이때는 무고라고 하였다.

도



로도

도, 로도, 뢰도, 령도

도, 로도, 뢰도, 령도는 긴 나무막대기에 한개 또는 여러개의 작은 북들을 북통의 중심에 꿰뚫어 꽂아놓은 북종류의 하나이다.

북통중심에 가죽끈을 매달았는데 악기의 나무대를 뽑아들고 좌우로 돌리면서 흔들면 가죽끈이 북편에 부딪쳐 소리가 나게 되여있다.

뢰도

령도

흔들북

력사자료에 의하면 흔들북은 고구려시기부터 사용하였다.

흔들북은 북통의 량면에 가죽을 메우고 옆면 량쪽에 짧은 끈을 매고 그끝에는 구슬 같은것을 하나씩 매달았다. 북의 테두리 아래쪽에 긴 막대기를 꽂고 막대기를 좌우로 회전하면서 흔들면 끈에 매달은 구슬이 북편의 량쪽에 부딪쳐 북을 울린다.

흔들북은 대체로 박절을 가르는 악기라기보다 효과악기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널리 리용되였다.

박

고구려시기부터 사용한 타악기이다.

박은 6개의 판목쪼각으로 만든다.

박은 주로 주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악기일뿐아니라 주악의 끝을 잘 맺어주는 지휘자적역할을 수행하는 타악기이다. 박은 또한 무용에서 소도구로도 쓰인다.

어

어는 1116년부터 궁중아악에 사용한 타악기의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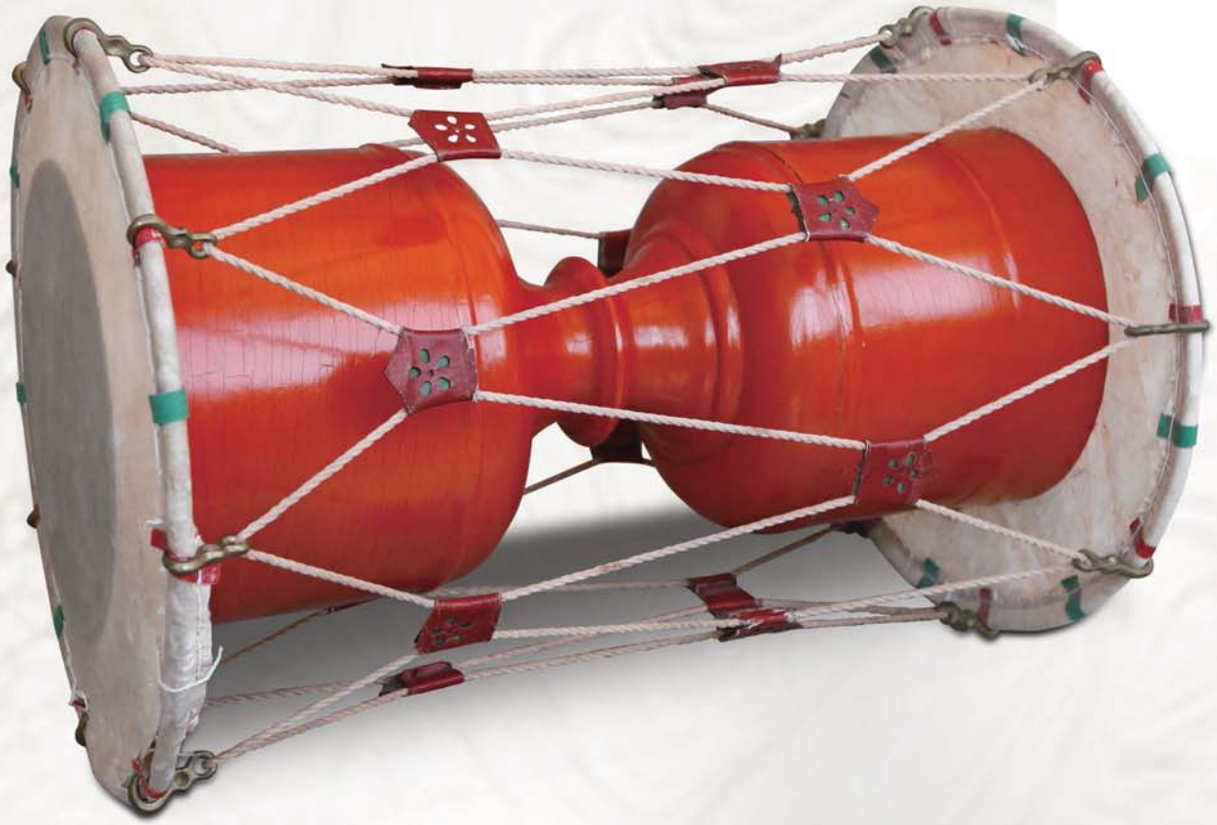
어의 연주법은 진채를 쥐고 범의 목덜미를 한번 친 다음 그 등줄기를 머리쪽에서 아래로 세번 긁으면 주악이 끝나는것으로 되여있다.

어는 주악의 시작과 끝남을 알릴 때 주로 사용하였다.

룡고

룡고는 우리 나라에서 오래전부터 인민들속에 널리 보급되고 연주되여온 북종류의 하나이다.

룡고는 당시 《소리》와 《창》에서 기본반주악으로 사용하였으며 기악반주나 무용반주 특히 법고춤(무용수가 북을 틀에다 걸어놓고 치는 춤)과 같은 무음반주음악에 사용하였다.



갈고

갈고는 장고와 같이 력사가 오랜 악기이지만 15세기경부터 주로 궁중악에서 향악과 당악에 사용하였고 민간에서는 장고와 같이 광범히 리용되지 않았다.

갈고는 음정을 조임토시를 리용하여 조절하게 되여있다.

갈고는 오른손에만 채를 쥐고 연주하는 장고와 달리 량손에 다 채를 쥐고 연주하는것이 특징이다.

장고

장고는 오래전부터 인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널리 쓰인 대표적타악기의 하나이다.

궁편의 부드럽고 폭넓은 소리와 채편의 예리하고 영근 소리의 조화로운 울림을 가진 장고는 조선장단의 풍부하고 다양한 리듬과 억양을 잘 살려주는 발전된 악기이다.

북

북은 우리 나라 민족타악기들중에서도 오랜 력사를 가지고 널리 리용되여온 악기이다.

북은 고대시기부터 사용되였으며 그 이후시기에 각이한 모양과 크기를 가진 여러가지 종류들이 새롭게 개량제작되여왔다.

고구려무덤벽화와 옛 문헌기록들에 의하면 고구려사람들은 4세기초부터 세운북, 매단북, 말북, 손북, 흔들북 등 다양한 형태의 북들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바라

바라는 금속제타악기의 하나로서 그 크기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다.

바라는 주로 농악에서 많이 사용되였으며 춤에서 소도구로도 리용되였다.

꽹과리

꽹과리는 우리 나라의 고유한 금속제타악기의 하나로서 오랜 력사를 가지고 있다.

꽹과리는 우리 인민의 로동생활과 밀접한 련관속에서 발전하여왔으며 특히 농악의 발생과 함께 주로 많이 리용하였다.

꽹과리는 예리하고 경쾌한 금속성의 독특한 음향으로 하여 흥겹고 락천적인 농악의 흥취를 돋굴뿐아니라 농악대의 지휘자적역할을 수행하였다. 하여 농악대앞에서 전체를 지휘하며 꽹과리를 치는 사람을 가리켜 일명 상쇠잡이라고 하였다.

꽹과리는 그 크기와 음색에 따라 암매구, 수매구로 구분하였다.

농악

음악, 무용, 놀이가 결합되여있는 우리 나라의 고유한 민속예술형식이다. 무용이나 놀이가 없이 순수 농악기만으로 연주되는 독자적인 기악양식도 농악이라고 한다.

농악은 우리 농민들이 가장 널리 즐겨온 대중적이며 집단적인 민속예술이다. 농악은 원시사회말기에 그 시원을 두고 고대와 중세를 거쳐 줄기차게 발전하였으며 특히 조선봉건왕조 후반기에 이르러 널리 성행하였다.

농악이란 말은 그것이 력사적으로 농업생산, 농민생활과 결합되여온 예술형식이라는 뜻에서 근대에 와서 불여진 이름이고 본래는 두레(두레놀이), 풍쟁, 걸궁, 마당놀이 등 여러가지로 불리우다가 중세에는 두레패, 걸립패, 굿중패라고 하였으며 근대에 이르러 농악대로 통칭되여왔다.

농악예술의 형상적특성은 꽹과리, 징을 위시한 여러 타악기로 강하게 울리는 변화무쌍한 률동적장단과 그와 결합된 새납의 랑랑한 선률가락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우리 나라 농악은 우리 선조들의 예술적재능과 그들의 락천적이고 전투적인 기백과 집단주의정신을 그대로 체현하고있는 우수한 민족예술형식의 하나로서 오늘 우리 시대 인민들의 생활감정에도 맞는 가치있는 음악무용유산으로 되고있다.

징

징은 금속제타악기의 하나로서 우리 나라에서 오래전부터 사용되여온 악기이다.

징은 꽹과리보다 더 크고 낮은 소리가 나는 악기로서 꽹과리와 함께 농악에 많이 리용되였을뿐만아니라 기악음악작품들에 리용되고있다.

자라나는 민족악기연주가후비들

우리 나라에는 앞날의 민족음악가가 될 고운 꿈을 안고 자라는 아이들을 위한 후비교육체계가 훌륭히 세워져있다.

경상유치원과 대동문유치원 등 조기음악교육기지들과 학생소년궁전들 그리고 예술학원들과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 등 각지에 정연하게 세워져있는 예술교육기관들에서는 학생들의 재능의 싹을 제때에 발견하고 그들의 천성적인 소질에 맞게 미래의 재능있는 민족악기연주가들로 훌륭히 키워내고있다.

…가야금병창은 독창과
가야금병창에 배합관현악으로
반주를 하는 형식으로 하는것이
좋다.
김 정 일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는 민족
악기연주가들을 잘 키워 민족악기
연주가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김 정 은
은 방 울

전통적이며 현대적인 악기로 발전해가는 우리 민족악기

우리 나라에는 민족악기를 비롯하여 각종 악기를 생산하는 단위들과 전문적인 악기제작연구단체들이 수도는 물론 각 도들에 정연하게 꾸려져있다.

국립악기연구소, 평양악기공장을 비롯한 전문적인 악기제작단위들의 기술자, 기능공들은 민족악기제작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전통적인 맑고 부드러운 음색을 살리면서도 음역과 음량이 풍부한 우수한 민족악기들을 제작하기 위해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나가고있다.

이목을 끄는 악기전시회

최근 여러차례에 걸쳐 진행된 평양악기전시회에 국립악기연구소와 평양민족악기공장을 비롯하여 여러 단위들이 참가하여 이전시기보다 품질이 높아진 민족악기들을 많이 출품하였다.

울림통 및 가죽막재질을 개선하여 울림과 막진동을 높이고 합금재료의 리용방법을 새로 연구완성함으로써 음색적효과를 잘 살린 타악기들인 장고와 꽹과리, 징이 참관자들의 류다른 관심을 모았다.

울림판진동수를 늘여 맑고 부드러운 소리를 더욱 부각시킨 어은금, 음공치수의 높은 측정분석에 기초한 음의 정확성과 제작에서 보다 과학적이며 섬세성을 보장한 고음저대와 연마와 도장기술을 높여 음량을 크게 한 장새납, 단소와 같은 목관악기들은 전문가들속에서 인기를 끌었다.

우리의 멋과 흥취를 돋구어주는 민족악기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손길아래 우리 민족악기들의 구성진 소리가 민족의 넋과 기상을 떨치며 조국땅 그 어디에서나 높이 울려퍼져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을 더욱 풍만하게 하여주고있다.

맑고 깨끗하며 우아한 가락과 흥겨운 장단으로 우리의 멋을 돋구어주는 민족악기들은 찬란한 래일을 가꿔가고있는 우리 인민들에게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한껏 안겨주고있다.

민족의 슬기와 재능, 넋과 얼이 깃들어있는 우리의 민족악기, 참으로 그것은 민족의 귀중한 재보이며 더없는 자랑이다.

우리 식 관현악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

관현악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는 근 반세기가 지난 오늘까지도 생명력을 잃지 않고 우리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작품이다.

만풍년의 희열과 랑만에 넘친 청산리사람들의 기쁨과 감정을 약동적이면서도 경축적인 민족적선률에 담아 음악예술적으로 훌륭히 형상하고있는 이 작품은 종래의 관현악창조의 틀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모든것을 새롭게 혁신한 우리 식의 관현악, 조선식관현악이다. 특히 작품은 장새납과 꽹과리를 배합하여 양악기는 흉내낼수도 없는 민족적인 정서를 한껏 돋구고있다.

관현악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는 민족적향취가 넘치는 주체적배합관현악의 독특한 울림으로 하여 오늘도 국내외의 수많은 사람들속에서 열렬한 격찬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오천년의 력사와 문화를 가진
례절밝고 문명한 민족이라오
자랑하자 우리 민족
사랑하자 우리의 땅
세상천지 둘러봐도
우리 민족 제일일세

해와 별 찬란해 빛나는 민족
온 세상에 존엄을 떨쳐간다오
자랑하자 우리 민족
사랑하자 우리의 땅
세상천지 둘러봐도
우리 민족 제일일세

(노래 《우리 민족 제일일세》중에서)